

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업사이클링 예비사회적기업 'Clubkeepus'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호 성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부분적으로 풀리고 배달음식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회용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회용기의 주재료인 플라스틱제품의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환경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결여 등 집단과 각 개인의 실천의 부재로 인해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문제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실천의 필요성만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위한 지역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의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동시다발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 벗고 나서서 환경문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을 알리는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예비사회적기업인 'Clubkeepus'가 있다. 인터뷰를 위한 사전 통화나 메일에서도 예의 바른 청년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답변에서 지역과 커뮤니티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KEEP EARTH, KEEPERS, KEEP US”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키는 사람을 자처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위의 슬로건처럼, 기업명은 지키는 사람들과(KEEPERS), 우리를 지키는 것(KEEP US)의 단어와 문장을 섞어서 중의적 의미를 담았고 책임의식과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 'CLUB'이라는 단어를 앞쪽에 넣어 완성하였다.

박지훈 대표는 평소 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성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고, 타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보령시에 돌아왔을 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보령머드축제 기간에 수 많은 관광객들이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하고 난 후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변에서 쉽게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플로깅 동아리(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활동했다. 그러던 중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발견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자원 순환율을 높여보고 싶다는 결심을 했고 이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클럽키퍼스는 박지훈, 김정희 두 명의 공동 대표가 이끌어 나가는 스타트업이다. 2021년 보령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수료를 시작으로 창설되었다. 한국중부발전 '에너지 드림 리그',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충청남도 '청년 공모사업' 등 다양한 정부·기관 사업들을 수행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체험 전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1년 정도 경과된 지금까지 약 5,000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클럽키퍼스 공동대표 (좌:김정희대표 우:박지훈대표)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월드비전, 한화 리조트&호텔 등 기업과의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2기 동기 창업팀, 보령시 청년 창업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을 홍보하고 주도하고 있는 '프레셔스플라스틱' 커뮤니티원들과 활발히 소통을 하면서 지속적인 소속과 연대감을 이어나가고 있다.

'클럽키퍼스'가 정립한 사회적 임무는 폐기물들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으로 기업을 설립하면서 세운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 ① 폐플라스틱 및 폐자원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 ② 올바른 환경 인식을 전달하기 위한 **체험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 진행.**
- ③ 플라스틱 세부분류 시스템 확립을 위한 **자원 순환 마을 설립.**

기업이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하는 과정은 수집→분류→분쇄→사출 총 4단계이며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분쇄 후, 다양한 형태의 몰드에 압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섞인 색깔과 형태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 클럽키퍼스가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만드는 방법 등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포함해 여러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사진출처: 프레스스플라스틱 서울(<https://ppseoul.com/main>)



실제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클럽키퍼스의 업사이클링제품 (사진제공: 클럽키퍼스)

김정희 대표는 업사이클링 제품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 커뮤니티인 '프레셔스플라스틱' 으로부터 많은 정보와 영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학교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로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활동을 참고하면서 기획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프로그램 중 업사이클링제품 제작과정 시연(사진제공:클럽키퍼스)

**“환경 교육은 사람들이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 등을 갖추게 하고
무엇보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앞으로 미래의 지구에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점에서
환경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대표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매번 방문 교육·체험을 나갈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청룡초등학교 장고분교 학생들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장고도는 보령시 대천항에서 21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배를 타고 2시간 이상의 이동이 필요했다. 이른 아침부터 체험에 필요한 기계와 짐을 싣고 가는 동안의 뱃멀미 때문에 고생하며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학교에 도착하였는데, 4명의 전교생이 눈을 반짝이며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피로감이 씻은 듯 사라졌다고 한다. 교육이 끝나고 장고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대한 감상이 더해져서 당시의 추억이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았다고 한다.

이어서 김정희 대표는 자원순환마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클럽키퍼스에서 운영하는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은 소규모 단위에서도 비교적 작은 크기의 사출기와 분쇄기 등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 비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마을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분류 및 재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함을 강조했다. 가능하다면 이후, 마을자치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업사이클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자원순환마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해오면서 두 대표가 느끼는 어려움은 사람들의 인식과 원재료의 조달 및 수요의 부족이라고 한다. 우선 쓰레기를 이용해 만든 물건과 재활용을 거쳐 만든 제품에 대해 사람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신제품에 비해 품질이 낮거나 비위생적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더불어 플라스틱의 소재 수급이 어렵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납품할 판매처는 적은 해당 비즈니스의 인프라에 대해 아쉬운 점을 내비치면서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환경 교육프로그램 수업(사진제공:클럽키퍼스)

두 대표는 기업이 지역의 건강한 문화적 도구가 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꾸준히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며 점차 친환경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언급했다. 그리고 현재 다루는 소재인 폐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폐소재들을 다룰 수 있는 업사이클링 회사로의 도약도 꿈꾼다고 덧붙였다.

“클럽키퍼스의 최우선 가치는 '폐자원 순환'과 다음세대의 '건강한 환경 가치관 함양'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책임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보면 걱정만 앞서거나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표어적인 실천 방식만 떠오르곤 했다.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클럽키퍼스의 업사이클링 제품과 작업하는 과정을 알게 되면서 필자도 폐자원의 선순환에 대해 시각을 넓히고 업사이클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선한 의지와 명확한 목표가 보이는 환경 지킴이 '클럽키퍼스'의 행보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이러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함께 협력하며 성장을 통한 스케일업으로 다수의 기업 구조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본다.